

글로벌 현장학습, 보다 내실있게 준비한다

전북도교육청, 특성학교·마이스터고 예비 글로벌 현장학습 진행...12주간 언어 등 사전교육

전북도교육청은 특성학교·마이스터고 2학년생을 대상으로 2021년 특성학교·마이스터고 예비 글로벌 현장학습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 현장학습은 도내 특성학교와 마이스터고 학생을 기층 선진국으로 파견해 3개월 동안 현지 학습하면서 다양한 전공체험의 기회를 갖고 해외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에는 매년 2월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선발, 9월에 해외로 파견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글로벌 현장학습을 진행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해외 현장학습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글로벌 현장학습 준비과정을 위해 예비 글로벌 현장학습을 운영기로 한 것이다.

예비 선발 인원은 최종선발인원(35명)

의 15배수인 531명이다. 서류와 면접시사를 거쳐 9월 대상자를 확정된 뒤 12주간의 교육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선발자를 결정한다. 이후 내년 9월 호주(23명)와 독일(10명)로 현장학습을 나갈 예정이다.

예비 글로벌 현장학습은 사전 언어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이 현지 취업 시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교육은 기술교육 및 언어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지며, 기간은 9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12주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비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해외 취업에 대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최종 선발시 예비 글로벌 현장학습 이수율 등이 반영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전국 4년제 대학 최초 지정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가 전국 4년제 대학 최초 농림수산식품부의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한식진흥법'에 따라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이에 연구소·대학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가 전국 4년제 대학에서 가장 먼저 지정된 것이다.

양성기관 지정에 따라 한식 관련 교육과정 운영 관련 국고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유네스코(UNESCO) 음식장외도 시로 지정된 전주에 자리하고 있는 전주대 한식조리학과는 2000년 국내 4년제 대학 최초로 한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설립됐다. 한식의 기초고급심화교육과 한식세계화를 위한 일본·중국·서양조리, 제과제빵, 푸드스타일링 등의 글로벌 한식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으로부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충족에 대한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다. 전주대는 이번 한식 전문인력

또한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한식조리특성화대학 사업 선정으로 4년간 12억의 국고 지원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한식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돼 매년 해외진출 한식전문조리사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청소년 세계 시민 공모전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신교승)가 '청소년 세계시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구촌에서 함께 영항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세계 시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것이다. 이번 공모전은 만 7세부터 24세 미만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 초·중·고 및 일반인과 나뉘어 오는 10월 13일까지 실시된다.

초·중등부는 '그림 공모'로 센터가 제작한 세계시민 샌드아트 영상을 유튜브(<https://youtu.be/qh490EZvS8>)를 통해 시청한 뒤 내가 바라는 지구촌 모습을 그려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고등 및 일반부는 '포스터 공모'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7개를 선택해 포스터를 통해 소개하면 된다.

도교육청, 신규 혁신학교 공모 심사

유3·초11·중7·고2곳 현장방문심사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혁신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6월~10월까지 유치원 3개교,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23개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14일 선정 협의와 24일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초 혁신학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6월 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의지와 실천 정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정도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운영 역량 및 의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정도와 형태 ▲학교업무최적화 실천 정도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여부 및 향후 계획 등을 심사해 우선 반영한다.

특히 혁신 더하기 학교는 참학력 기반 혁신교육과정(학교교육) 개발 또는 지역 혁신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학교로서 교육과정 혁신과 교육지원청 및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한 연대와 협력의 교육활동 노력이 포함돼야 한다.

2022년 지정 혁신학교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운영된다. 한편, 올해 운영되는 혁신학교는 모두 2개교다.

"마이스터고 활성화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복원해야"

황호진 전 부교육감, 정책 간담회서

담양이교육포럼의 교육현장 정책간담회인 OECD교육전문가 황호진이 찾아갑니다'는 의사를 위촉한 '마이스터고'인 국립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두승)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과학고 외고 등과 같은 특목고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예비 마이스터(Yang Meister)를 육성하는 최고의 기술중심 고등학교로 전국적으로 52개교가 있다. 도내 마이스터고는 군산기계공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한국경제고, 전북기계공고 등 모두 4개교로, 이중 유일한 국립인 전북기계공고가 2010년 가장 먼저 개교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기계공고는 신산업분야인 '시로봇'과 '미래차(전기차)'의 특화 교육과정 운영과 지멘스 메카트로닉스 인증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팩토리 분야 실무능력향상교육 등을 통해 미래산업에 대비한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90%가 넘는 취업 성과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두승 교장은 "지역 마이스터고의 우수한 졸업생들이 전북을 떠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소재한 기업으로 취업하고 있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전북에 소재한 기업으로 취업하고 이를 통해 전북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연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호진(전)전북부교육감은 "진로상담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등 아직도 직업계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형성돼 있는 게 안타깝다"며 "진학정보시스템과 교육이 체계화되고 일선 현장 교사의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마이스터고·특성 학교는 지역의 산업과 문화 등 지역 자원의 연계가 중요하다"면서 "지역 산업생태계가 형성되고 지역의 선순환 경제구조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직업계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황 부교육감은 "직업계고 교육과정에서부터 지역산업과 연계하고 지역대학 개설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고교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원격수업이 교육의 '뉴노멀(new normal)'이 된 시대인 만큼 '에듀테크'로 온라인기반의 현장실습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청렴·응급처치 교육

전북유아교육진흥원(원장 전금옥)은 6일 청렴 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2시간 동안 함께 생각하는 청렴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윤리적 가치의 갈등 ▲청탁금지법 도입 배경 ▲5개의 신고·제출 의무 ▲5개의 제한·금지 행위 ▲부정청탁의 정의 ▲새로 바뀐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 등이다.

또 평소 애용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기프트코드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가?, '부정청탁에 예외는 없는가?', '출강할 때 강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공무원이 하는 유티브는 외부강사에 해당되는가?' 등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후에는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 전문강사로부터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 등 응급처치 교육도 받았다.

심폐소생술은 의식을 잃고 심장박동이 쓰러졌을 때 심장 압박을 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이며,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면 더 쉽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특히 하임리히 요법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사 사고 일어났을 때 시행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은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전금옥 원장은 "청렴과 응급처치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청렴 교육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이루고, 응급처치 교육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체육 꿈나무 42명, 최종 대결 펼친다

'체육 꿈나무 선발대회'서 15일 결승전 순창서 개최

체육 꿈나무 선발대회 본선 관문을 통과한 42명의 학생들이 우승 트로피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6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체육 영재를 발굴·육성하는 체육 꿈나무 선발대회 예선전과 본선 경기가 도민들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 대회는 전북체육회가 전국 최초 도입한 체육 영재발굴 프로젝트로,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전문 소속반에 소속되지 않은 도내 학생(초등학교 4년~중학교 1년) 가운데 운동에 재능이 있는 숨은 체육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함이다.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결승전(결선)은 오는 15일 순창공설운동장에서 열리며,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42명의 학생들이 자웅을 겨룬다.

결선 진출자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먼저 초등부 4학년은 이호준(군산산북초), 김재하(전주북초), 김동건(임실초), 류지안(전주송천초), 김하성(부안동초), 유한진(군산초), 강민경(무주중앙초), 최세라(전주한빛초), 조은솔(전주민성초), 강서현(남원월락초), 오다경(남원월락초) 등이다.

호원대, 미래형자동차 상용자율주행 산학협업체와 협약

호원대학교(강희성 총장)는 6일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미래형자동차 상용자율주행 산학협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에는 미래형자동차 상용자율주행 산학협업체 박병길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성기 전북본부장과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 장병권 부총장 박형주 산학협력단장 홍순경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장, 서종길 미래자동차학과 학과장 원종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정우환 전기공학과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인재를 발굴, 육성해 미래형자동차 상용자율주행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직장인들의 교육과 취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강희성 총장은 "양 기관이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구축해 기술, 창의, 시장성이 우수한 아이템을 실제적으로 발굴해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인증, 취업까지 포괄적인 윈윈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길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며, "기술교육 및 포럼 네트워크 등에도 호원대학교와 함께 해서 지역의 자동차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취

우석대,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선정

우석대학교 김주은 교수(약학과) 학술연구교수와 채현숙(생명과학과) 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기초연구사업인 박사후국내연수사업에 선정됐다.

이날 선정된 김주은 교수는 학술연구교수인 임재운 교수와 함께 2024년 8월 말까지 사업비 1억8000만 원을 지원받아 '박테기나루 앞에서 분리한 6-hydroxykampeferol-3-O-glucoside와 싸에서 분리한 aquilegic acid의 기억력 개선 메커니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채현숙 연구원도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2023년 8월 말까지 서지은 교수의 지도 아래 '한국산 원구류(태형동물)에 대한 분류학적 재검토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은 학술연구교수와 채현숙 연구원은 "선정된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할 것이며, 특히 대학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찬현 총장은 "선정된 과제 수행을 통해 연구자가 창의적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연구역량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사후국내연수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학문 후속 세대에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연구 기회를 제공해 학술연구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 능력의 질적 향상 유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호원대, 미래형자동차 상용자율주행 산학협업체와 협약

호원대학교(강희성 총장)는 6일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미래형자동차 상용자율주행 산학협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에는 미래형자동차 상용자율주행 산학협업체 박병길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성기 전북본부장과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 장병권 부총장 박형주 산학협력단장 홍순경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장, 서종길 미래자동차학과 학과장 원종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정우환 전기공학과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인재를 발굴, 육성해 미래형자동차 상용자율주행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직장인들의 교육과 취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강희성 총장은 "양 기관이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구축해 기술, 창의, 시장성이 우수한 아이템을 실제적으로 발굴해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인증, 취업까지 포괄적인 윈윈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길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며, "기술교육 및 포럼 네트워크 등에도 호원대학교와 함께 해서 지역의 자동차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취



업, 창업 성장을 위한 공동사업도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또한 김성기 전북본부장은 "지역산업과 호원대학교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상호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순경 센터장은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에서 1750여개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총괄 지원하던 풍부한 경험과 경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들이 기술융합을 통해 신사업과 신기술을 창출해 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는 지난 8월 1일자로 홍순경 센터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 컨설팅팀 전문가로 구성, 지역 전략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됐다.